

“휴대폰만 보여주면 결제 끝” 간편결제에 지급여는 2030

서비스 가입자 1억7000만명
대형마트, 매장서 간편결제 도입
롯데 ‘엘페이’ 신세계 ‘쓱페이’ 등
수수료 줄이려 간편결제 운영도



온라인 쇼핑몰에 매출을 뺏기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젊은층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전국 140개 점포에 ‘카카오페이’ 매장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이 카카오톡 앱에서 생성한 결제 바코드를 제시하면 충전한 금액에서 상품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마트매장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은 일 최대 200만원, 월기준 1500만원이다.

지난 2015년부터 온라인몰에서 이미 카카오페이를 도입했지만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오프라인 도입을 추진했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일부 유통업체는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간편결제’ 사업에 이미 뛰어들어 있다. 롯데 ‘엘페이’와 신세계 ‘쓱페이’가 대표적이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외에도 신용카드의 결제비율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들은 ‘간편결제’ 제휴사를 늘리고 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는 공통적으로 ‘삼성페이’와 ‘엘지(LG)페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마트는 ‘간편결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마트는 지난 8월부터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를 도입했다. 지난 5월 중기부가 선보인 모바일 직불결제 ‘제로페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 등으로 수수료가 거의 ‘0%대’이다. 이마트는 이번 카카오페이 도입으로 대형마트 중 가장 많은 간편결제 수단을 보유하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누적 가입 회원수가 3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간편결제 서비스다. 올해 3분기 누적 거래액만 34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마트는 연말까지 10만원 이상 카카오페이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1만원 할인권을 준다.

롯데마트 역시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엘페이’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엘지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은 ‘쓱페이’까지도 도입했다. 홈플러스는 삼성페이·엘지페이와 각 카드사 앱카드, 비자 및 BC 결제수단 등을 이용하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총 50종(43개사)에 대한 전체 가입자 수는 1억7000만명을 넘겼다. 결제 건수는 8억5800만건(2016년)→14억900만건(2017년)→23억7700만건(2018년)으로 크게 오르며 2년 새 2.8배 성장했다. 지난해 간편결제 전체 이용금액은 80조1453억원으로 1건당 3만3600원을 쓴 셈이다.

이마트24, 와인데이 행사

편의점 이마트24가 지난해 와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12월24일부터 연말까지 8일간 매출이 한 달 매출의 절반 이상(51.6%)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마트24에서 가장 와인이 잘 팔린 달은 12월로, 와인 매출 가운데 16.1%는 12월에 집중됐다. 이마트24는 연말 와인 수요를 잡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사 최대 규모 ‘와인데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레드와인 29품목, 화이트와인 9품목 등 총 38품목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NH농협카드도 결제하면 G7와인 3종(까베르네소비뇽, 멜로, 샤도네이)을 약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G7와인 3종 750ml는 5900원, 375ml는 4500원, 187ml는 2900원에 판매한다.

생대구, 겨울철 수산물 강자 등극

어획량 전년비 80% 증가
이마트, 오늘부터 할인행사

올해 대구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80% 넘게 증가하면서 인기 수산물 자리를 차지했다.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11월 대구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했다. 날씨가 추워진 이달 1~18일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150% 뛰기도 했다. 이마트에서 이달 팔린 생 수산물 가운데 생대구는 역대 처음으로 갈치, 고등어보다 매출이 높았다. 대구가 겨울철 인기 생선으로 등극한 이유는 늘어난 어획량 때문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10월 대구 어획량은 167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7t) 보다 83% 증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날이 춥지 않은 10월 대구 어획량이 다른 달보다 많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올 11월 생대구 위판가는 지난해보다 30% 가량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산 생대구(2.5~3kg)를 2만3800원에 선보인다. 100g으로 환산하면 880원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가격(2만9800원)보다 25% 저렴하다. 이상훈 이마트 수산 담당자는 “생대구의 산란 전인 12월은 가장 살이 통통하며, 영양가가 높은 시기”라며 “특히 올해 풍년으로 고객들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생대구를 맛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청년 개발 우수 상품 백화점 간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7일~내년 1월2일 지역 청년창업기업 3곳과 함께 ‘우수상품 초대전’을 연다. 지난해 행사 모습. (롯데백화점 제공)

내일부터 롯데백화점서 ‘창업 우수상품 초대전’

창업을 꿈꾸는 지역 청년들이 개발한 상품이 백화점으로 간다. 2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청년 창업 우수상품 초대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청년창업사관학교 연수원생 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달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함께 ‘창업 제품 품평회’를 열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부터 호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지역 우수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남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역 CEO 인재를 발굴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곡성 특산품인 토란을 사용한 ‘명품 탁주’와 고구마 말랭이, LA식 발효 숙성 돼지갈비, 유기농 양파진, 식초

음료 등을 만날 수 있다. 백병의 롯데백화점 광주점 부점장은 “우수한 제품이지만 판로 확보가 어려워 빛을 보지 못하는 청년기업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 청년들이 경쟁력을 키워 전국적인 업체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지난 6~15일 매장 1층에서 지역 청년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광주리(RE) 장터’를 열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연인·부부 크리스마스 선물 1위 ‘커플 속옷’

선물 가격대 5만~15만원

부부나 연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속옷으로 나타났다. 남영비비안은 지난 2~6일 20~50대 남녀 236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배우자나 연인을 위해 선물을 준 비비안은 응답 비율이 87%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물하고 싶은 커플 아이템으로는 가장 많은 39%의 응답자가 커플 속옷을 꼽았다. 이어 파자마(27%), 옷(16%), 운동화(10%), 반지(4%), 시계(3%) 등의 순이었다.

다. 특히 연애 중인 미혼 커플 응답자 중 속옷을 꼽은 비율은 41%나 됐다. 속옷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할 때 선호하는 품목으로는 함께 입을 수 있는 잠옷을 꼽은 응답 비율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커플 속옷(28%), 이지웨어(18%), 라제리(18%) 등이 뒤를 이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의 가격대로는 가장 많

은 61%가 ‘5만~15만원’을 택했다. 이어 ‘5만원 미만’ (22%), ‘15만~30만원’ (14%), ‘30만원 이상’ (3%)의 순이었다. 한편 취업정보사이트 인크루트가 지난 9~17일 성인 439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응답자는 4명 중 1명꼴(24%)로 나타났다. 선물을 고를 때는 ‘가격’ (24%)을 가장 중시했고 ‘정성’ (22%), ‘실용성’ (31%) 등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세계백화점, 커피 찌꺼기로 만든 비료 기부

무안 양파 농장 등 5곳

신세계백화점은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커피 찌꺼기로 만든 비료를 중소농가에 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10월부터 수도권 6개 점포의 VIP 라운지 이용 고객들에게 제

공하는 커피에서 나온 찌꺼기를 2주에 한 번씩 회수한 뒤 정성에 있는 공장에서 비료로 가공했다. 이렇게 만든 비료 30여톤은 무안 양파 농장과 제주도 감귤 농장, 경북 상주의 포도 농장 등 지역 중소농가 5곳에 무료로 제공된다.

또 기부한 비료로 재배된 유기농 상품은 내년 가을부터 백화점에서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수도권 점포에서만 매년 50t 이상 커피 찌꺼기가 버려진다”면서 “찌꺼기 수거 대상을 지방 점포까지 확대해 더 많은 지역 유기농 농가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